

우리들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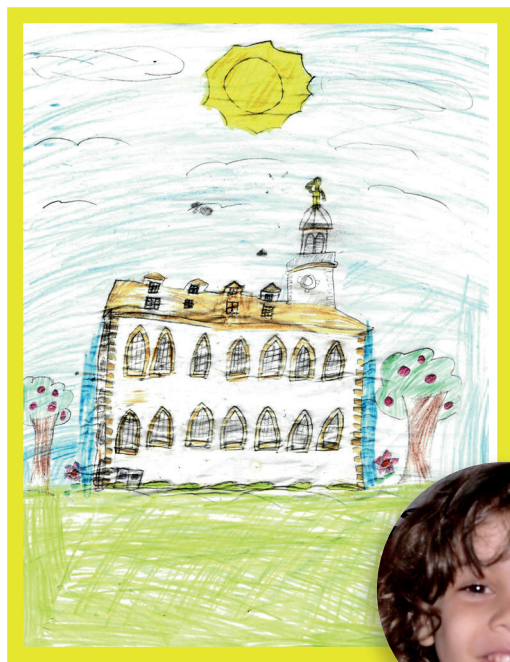
저는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요. 저는 반 친구들에게 영어와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게 좋아요. 부모님과 구주께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.
해나 에스, 6세(사진 찍힌 당시), 나이지리아



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기에 저는 기도 하는 게 좋아요. 그분들이 살아 계시고,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요.
저는 가정의 밤을 좋아하고,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는 걸 좋아해요.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이에요.
오마 브이, 7세(사진 찍힌 당시), 에콰도르



저는 곧 열두 살이 되어 아론 신권을 받을 거예요. 아론 신권을 받으면 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저의 조상님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!
아벨 에스, 11세(그림 그린 당시), 페루



아난다 에이, 9세(그림 그린 당시), 브라질

여러분을 위한 질문

“우리 형(오빠)은 군인이예요. 저는 형(오빠)이 너무 보고 싶어요. 어떻게 형(오빠)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?”

여러분의 대답을 liahona.lds.org로 보내거나(“기사 제출”을 클릭) liahona@ldschurch.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. 여러분의 이름과 나이, 스테이크나 지방부의 이름,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.